빅리거 정영일 '홍길동 氣' 받다

진흥고 후배들과 함께 장성서 해병대식 훈련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에 입단한 '괴물' 투수 정영일(19·광주 진흥고 졸업 예정·사진)과 예비 빅리거 유제국(24·시카고 컵스), 빅초이 최희섭(28·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2007년 새해 벽두부터 강도 높은 훈련으로 메이저리거 꿈을 다지고 있다.

미국 아마추어 야구 격주간지인 베이스볼아메리카(BA)로부터 에인절스 유망주 톱10 4위로 꼽혔던 정영일은 2일 모교 후배들과 함께 해병대식 극기훈련 체험 시설인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했다.

지난 7월 에인절스와 계약금 135만달러에 계약했던 정영일은 오는 7일까지 5박6일 간 극기훈련으로 강한 체력과 자신감을 충전할 계획.

정영일은 "모교에서 혼자 훈련하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해병대식 훈련을 받기로 결심했다. 체력도 기르고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최희섭, 유제국의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홀오브드림스(대표 이치훈) 식구가 된

정영일은 다음달 졸업식을 마치고 스프링캠프가 차려지는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로 이동한다.

지난 해 10월 4일 입국해 1주일 휴식 후 모교인 덕수정보고에서 나홀로 훈련을 해왔던 유제국은 1주일 전부터 캐치볼을 시작했고 2월 스프링캠프 입소 전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릴 생각이다.

올해 팀내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1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유제국은 주로 중간계투로 활약하며 10경기에서 승수 없이 1패에 방어율 8.40에 그쳤다.

지난 달 18일 일본 굴지의 대기업 후요그룹 회장 딸인 야스다 아야(30)씨와 약혼식을 올린 최희섭도 본격 훈련을 시작했다.

약혼식 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헬스클럽에서 강한 웨이트트레이닝으로 몸을 만들어 왔던 최희섭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타격 훈련을 병행하며 메이저리그 복귀를 준비한다.

최희섭은 지난 해 무릎 부상 여파로 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포터킷 레드삭스에서 홈런 8개 등 타율 0.207, 27타점에서 그쳤고 같은 해 11월 탬파베이와 2년 간 총 195만달러짜리 스플릿 계약을 해 스프링캠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야 주전 경쟁을 뚫고 메이저리거로 재승격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국 동계아시안게임 28일 개막

한국 선수단 168명 파견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서 열리는 제6회 동계 아시안게임에 168명(임원 42명, 선수 12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빙상과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바이애슬론 등 5개 종목에 걸쳐 168명의 선수를 파견키로 하는 최종 엔트리를 최근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금메달 10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 등으로 일본에 이어 종합 2위 자리를 지켰던 2003년 아오모리 대회 때의 171명(임원 43명, 선수 127명)보다 조금 줄어든 규모다.

이번 대회에는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나란히 쇼트트랙 남녀부 3관왕에 올랐던 안현수(한국체대), 진선유(광문고 졸업 예정)와 지난 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했던 '피겨 요정' 김연아(군포 수리고) 등이 출전자 명단에 포함됐다.

4년전 아오모리 대회 때 은메달과 동메달 각 1개로 종합 6위에 올랐던 북한도 최종 엔트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전체 24~26개국의 1천100여명의 선수가 메달 레이스를 벌일 전망이다.

배창환 대한바이애슬론 회장을 단장으로 한 선수단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결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17~27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제22회 동계 유니버시아드에는 선수 89명과 임원 34명 등 총 12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4일(목)

▲대학장사씨름 4차대회 소장급(14 : 00·MBC ESPN)

▲V리그〈LIG-상무〉(14 : 10·KBS1)

▲프로농구〈LG-KT&G〉(18 : 50·X-ports)

▲WTA 테니스 왓슨스 워터〈샤라포바-얀지〉(19 : 20·SBS스포츠)

'마린보이' 박태환 개인훈련

박태환이 3일 서울 삼성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개인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전국체전의 해

〈2〉 준비상황

염주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사이에 들어서는 다목적 체육관의 조감도. 이 체육관은 신설되는 경기장 중 가장 많은 예산(96억원)이 투입되는 시설로 체전중에는 핸드볼경기장으로, 체전후에는 선수 훈련센터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된다.

다목적체육관 96억 들여 8월 완공

전국체전의 성공 여부는 매끄러운 경기 진행과 운영에 달려있다.

광주시는 참가 선수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0월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의 경기 종목은 모두 41개, 이들 경기를 소화할 경기장 수는 66개다. 이중 59개의 경기장이 광주에 있으며, 7개는 전남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기장 4개만 신설…'검소한 체전' 추진

전남 시설 6곳 등 대부분 개·보수 활용

또한 2007년 광주 체전에 이어 다음 해인 2008년 체전은 전남도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체전 바통을 주고 받아야 할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찌감치 협력 체제를 구축, 88·89회 양 체전에 필요한 경기장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광주시는 재정여건과 체전 후 관리 등을 감안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곤 신설을 가급적 축소 ▲기존 체육시설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해 최대한 활용 ▲양호한 시설은 점검 후 사용한다는 등의 경기장 정비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시는 예산이나 여건상 자체적으로 경기장 확보가 어려운 6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협조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키로 했다.

전남도는 6개 시설을 완벽하게 개·보수해 광주시의 성공적 체전 개최를 돕기로 했으며, 내년 전남체전 시에는 광주 무등야구장과 염주승마장 등을 전남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시가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277억원에 달한다.

시는 전남도의 협조로 여유가 생긴 사업비 등을 투입해 서구 염주체육공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천650여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설 경기장 중 가장 많은 예산(96억원)이 투입되는 다목적 체육관은 전국체전 중에는 핸드볼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대회종료후에는 선수훈련센터와 시민생활체육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체전에 활용되는 66개 경기장은 ▲신설 4개-인라인롤로경기장(수완지구), 다목적체육관(풍암동), 하키장(조선대), 정구장(용산동) ▲개보수 56개-광주 50(시 19·자치구3·교육청13·국립대9·민간시설6), 전남6(사이클2·요트·사격·카누·조정) ▲시설 양호 6개-마라톤, 축구장(3), 배구, 골프 등이다.

시는 이들 경기장에 대해 지난 해 12월까지 기초조사와 개보수 설계를 마쳤으며 올 1월 경기장 사용승락 협약체결 및 개보수공사에 들어가 7~8월까지 경기장 시설 공·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체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대는 대회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된다. 시는 지난 해 성화대 디자인 현상공모를 했으나 당선작이 없어 오는 22일까지 재공모를 거쳐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설 경기장 중 다목적체육관은 서구 염주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사이에 세워지며, 1월중 공사에 착수해 8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광산구 수완지구 중앙공원내에 들어서는 인라인롤러경기장(75억원)은 경기장과 연습트랙, 관람석 등으로 이뤄졌으며, 1월 중에 공사에 들어가 8월말 완공된다.

동구 용산동에 지어지는 정구장(13억3천만원)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선대내의 하키장(10억원)도 1월부터 인조잔디 조성에 들어가 8월이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